

金立之撰 新羅 聖住寺碑 (其三)

黃 壽 永

新羅 聖住寺는 오늘 그 遺墟가 忠南 保寧郡 嶺山面 聖住寺에 있다. 그 位置가 交通이 不便한 僻地에 있어서 일찌기 注目되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攪亂이 아니되고 오랜 歲月에 傳來하여 왔다. 그러나 이 寺址에는 史에 유명한 崔孤雲撰 四山碑의 하나인 無染國師碑가 傳來하고 있었으며 伽藍址에는 石塔計 四基가 保存되어서 그들의 形式解說과 나아가 그 名稱에 대한 推定이 論議되기도 하였다. 필자 또한 解放直後부터 이 寺址의 重要性을 깨닫고 나아가 그에 대한 關心을 기울리 하지 않았었다. 그러던 사이 一九六〇年代에 들어서면서부터 寺址石造物에 대한 注目이 增加되어 갔으며 이에 따라 먼저 上記한 無染朗慧碑와 이웃하였던 龜趺 및 螭首의 破片이 당시의 國立博物館 扶餘分館長 朴日蕙氏에 의하여 同博物館 庭園으로 이관됨을 계기로 이 사지에 대한 學的關心이 漸高되어갔다. 그리하여 이때 같이 수습된 計 三점의 碑片에 대한 考察①이 이루어졌는 바 이것은 그 直後 필자에 의하여 수습된 「崇巖山聖住寺事蹟」②이 하나의 중요한 자료로서 등장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같은 성추사 관계 史料의 出現이 동기가 되어서 마침내 필자가 그 당시 재직하고 있었던 동국대학교 박물관이 主管이 되어서 同寺址에 대한 최초의 조사가 착수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리하여 寺址 全域의 實測과 龜趺 原在地點에 대한 발굴 또 金堂址 중앙에 전례하던 巨大한 鐵造坐像(今亡)의 蓮花石座의 발굴과 寺址 西方에서의 朗慧和尚八角浮圖 破石片의 수습 등이 이루어졌다. 동시에 이

寺址에서는 百濟 蓮花文瓦當片이 수차에 걸쳐서 수습되므로써 上記한 바 「事蹟」의 기록과 같이 이곳이 백제의 烏舍寺③로서의 考察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필자는 그후 이 寺址를 다시 찾지는 못하였으나 이같은 現地調査이 후 部落民에 의하여 殿址의 濫掘이 진행되어서 塑佛頭같은 것이 京鄕에 流出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外人의 손에 入手되고 있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그사이 洪思俊氏를 중심으로 하는 百濟文化研究會가 이 寺址를 찾았으며 兩次에 걸쳐서 碑片을 수집한 바 있어 그중 第一次로 收拾된 兩片에 對하여서는 이미 木誌④에 소개한 바 있었다. 그 직후 다시 新片 二개가 寺址 周邊에서 수습되었으므로 다시 이곳에 기록하려는 바 이상 前後 計 四片은 모두 필자가 일찌기 論議한 바 있었던 新羅 金立之撰 聖住寺碑의 破片들이다. 이들 새로 수습된 大小 兩片을 다음에 기록한다.

(其一片)⑤

繩墨占

之室又以張

端嚴眸容岐嶷青

奉爲魏昕伊浪

伊浪之息奉

深願其

(其二片)⑥

伊浪庶兒施

乃以成花殿雲楸綠

金殿敷無佛像頭捨家

盤絲紺之髮紅掌展瑞印之

三層無垢淨石塔又擬立七祖

領色羅匹段并租一百頃

暮異 案 青瀾日

繩墨占
 室又以張
 而嚴眸容歧嶷青
 奉為魏昕伊復
 伊復之息卷
 深願其
 金殿歎無佛像頓捨家
 紺絲之髮紅掌展瑞印之
 層無垢淨石塔又擬立七相
 領色羅匹段并租一百
 暮異
 絲青澗日

新羅 聖住寺碑片 拓本

이상 二片의 碑文중 其一片에 보이는 「魏斯伊浪」은 이미 이 寺址에서 最初로 발견된 碑片에 이같은 四字가 보인 바도 있었다. 그는 金陽으로 서 三國史記 卷十一 文聖王代에 여러차례 보이고 있으며 同書 卷四十四 列傳에도 보이고 있다. 또 其二片에 보이는 「無垢淨石塔」이란 것은 同 寺址에 전래하는 石塔 建立의 所依經典이 新羅의 傳統을 따라 無垢淨光 陀羅尼經임을 짐작케 한다. 慶州 昌林寺石塔에서 발견된 銅板銘에 「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라 있음에서 이것이 聖住寺碑와 더불어 同一人인 金立之에 의하여 文聖王代 거의 때를 같이하여 마련된 사실이 한층 수긍됨이 있다. 그리하여 聖住寺石塔의 建立因緣이 또한 당대의 王家에서 建立한 願塔과 共通됨이 있었음을 알겠다. 이같은 點에서도 이곳 石塔 들을 이곳 創建祖師들의 浮圖로 해석한 종래의 견해는 是正되어야 할 것이다. ⑦

註

- ① 拙稿·金立之撰 新羅聖住寺碑(文化財)第四號 一九六九年 九月)
- ② 拙稿·崇巖山聖住寺事蹟(考古美術)九卷 九號)
- ③ 洪思俊·百濟烏合寺考(考古美術)九卷 十一號)
- ④ 拙稿·金立之撰 新羅聖住寺碑(考古美術)一一五號 一九七二年 九月)
- ⑤ 一九七二年 九月경 聖住寺址北方의 民家 담장속에서 발견하였다.
- ⑥ 一九七二年 十月경 聖住國民學校庭의 整地工事에서 수습되었다.
- ⑦ 拙稿·新羅聖住寺大朗慧和尚白月葆光塔의 調査(考古美術)九卷 十一號)



碑片에 「佛像」「石塔」의 銘文이 보인다.